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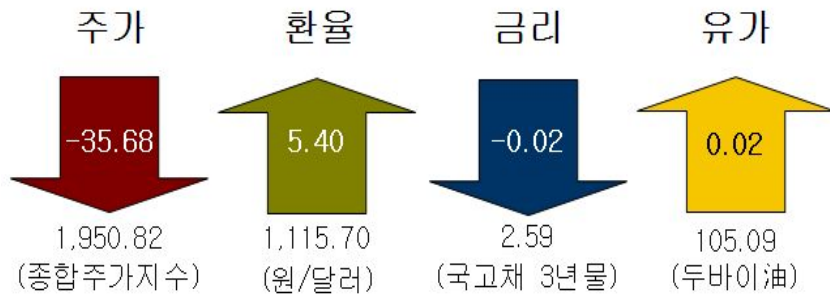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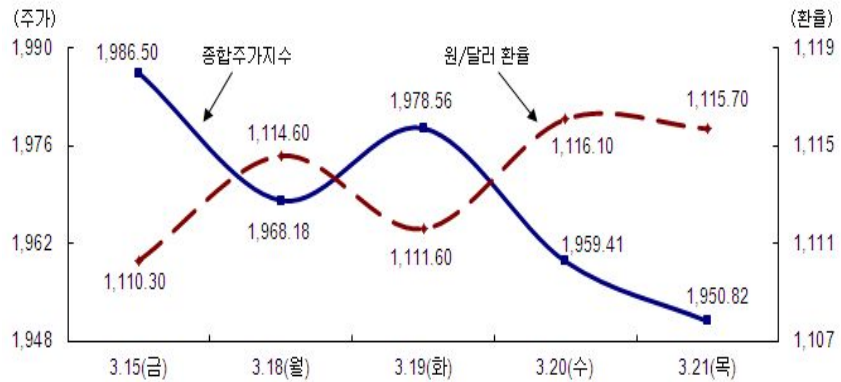
Weekly Economic Review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 한국 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 중 20위

Better than
the Best!

週間 主要 經濟 指標 (3.15~3.21)



차 례

주요 경제 현안	1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평가	1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20

□ 본 자료는 기업 경영인들을 위해 작성한 국내외 경제 경영 주요 현안에 대한 분석 자료입니다.
□ 본 보고서의 내용은 연구원의 공식의견이 아닌 연구자의 개인 견해를 밝히며, 보고서 인용 시에는 반드시 출처를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괄 : 유 병 규 경제연구본부장 (2072-6210, bkyoo@hri.co.kr)
□ 작성 : 이 부 형 수석연구위원 (2072-6306, leebuh@hri.co.kr),
정 민 선임연구위원 (2072-6220, chungm@hri.co.kr)

Executive Summary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개발과 평가 - 한국 창조경제역량, OECD 국가 중 20위

1. 창조경제역량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창조경제역량지수란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량 즉, 창조경제역량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상대적 경쟁력을 지수화한 것이다. 창조경제역량을 구성하는 요소로는 인적자본(9개 지표), 연구개발혁신자본(9개 지표, 이하 혁신자본), ICT 자본(8개 지표), 문화자본(9개 지표), 사회적 자본(11개 지표)과 같이 경제전반의 창조역량을 제고시키는 5가지 요소로 구분하였다. 산출방법은 최고 수준을 10으로 하여 모든 개별지표들을 표준화한 후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값을 지수화했다. 비교대상은 OECD 31개국이다.

2.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수준은 G7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OECD 국가 중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된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로 OECD 31개국(이하, OECD) 평균6.3을 다소 밑도는 수준으로, 전체 31개 국가 중 20위로 나타났다. **둘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G7 국가와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인데 반해 OECD 평균은 6.3, G7 평균은 6.6으로 나타나, G7과의 격차가 더욱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이 ICT 자본을 제외하면 모두 G7 평균에 못 미치는 것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 최고 수준, 혁신자본은 상위권으로 나타난 반면,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은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한국의 ICT 자본은 OECD 중 1위, 혁신자본은 11위 수준으로 타 자본에 비해 상대적으로 순위가 높았다. 하지만, 한국의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역량지수는 각각 6.5, 3.7, 6.7로 OECD 평균 7.3, 4.7, 7.5를 하회하여 각각 22위, 29위, 21위 수준이다. 특히 문화자본은 최하위 수준이다. 문화자본이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난 것은 문화자본역량을 구성하는 9개 요소 가운데 유일하게 OECD 평균을 상회하는 세계문화유산 제외하면, 투입 부문의 2개 요소(가계 지출 중 오락 및 문화 비중, 정부예산 중 여행 및 관광 지출 비중), 인프라 부문의 3개 요소(세계 자연유산 수,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관광인프라), 성과 부문의 3개 요소(관광 수지비,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의 무역 수지비) 등 총 8개 요소들이 OECD 평균을 하회하고 있기 때문이다. **넷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간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31개국 가운데 1위(ICT 자본)부터 29위(문화자본)까지 순위차가 심하다. 이는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 대부분의 G7 국가들의 부문별 창조경제역량지수가 중상위권에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다섯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내 격차도 상존한다.** 혁신자본과 같이 31개국 중 11위로 비교적 상위로 평가된 요소조차도 벤처캐피탈의 이용성이나 기술무역 수지비와 같은 지표들은 OECD 평균을 하회하는 것은 물론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더욱이, OECD 1위 수준인 ICT 자본에서도 정보기술력과 같은 인프라 지표가 20위권에 머무는 등 부문 내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한다.

3. 시사점

국내 창조경제 육성을 위해서는 전반적인 창조경제역량의 경쟁력 제고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가운데 뛰어나다고 평가되는 혁신자본과 ICT 자본의 활용도를 제고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ICT 자본의 고도화, 혁신자본의 창조경제역량 기여도 제고, 혁신자본과 ICT 자본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역량 구성요소 간 융합 촉진 등의 정책이 필요하다. **둘째,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 노력이 필요하다.** 인적자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의 원천적 경쟁력 제고,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개인 또는 집단의 창조성 발현 가속화,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극대화 전략 추진을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 등의 전략이 추진되어야 한다. **셋째, 정책추진 일관성 유지 및 창조경제 구성 요소들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추진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1. 창조경제역량 평가 필요성

○ 주요국들이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하는 가운데 신정부가 구상하는 창조경제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모색해야 함

- 미국, 일본, EU 등 주요 선진국들은 새로운 성장패러다임을 모색 중
 - 미국, 오바마 2기의 신경제 애국정책¹⁾ : 제조업 부활, 에너지 자급, 중소기업 지원 강화, 교육의 질적 향상 제고, 재정 건전성 확보, 오바마케어²⁾를 통해 새로운 성장 패턴을 만들고자 함
 - 일본, 아베노믹스 추진²⁾ : 무제한 금융완화 추진, 강력한 경기대책을 통한 경기 회복 및 산업경쟁력 제고, 규제개혁 추진을 통한 신산업 육성을 골자로 하는 아베노믹스가 추진되고 있음
 - EU는 'Europe 2020' 전략을 추진³⁾ : 이노베이션 연합, 청년층의 자유로운 이동, 유럽을 위한 디지털 어젠다 추진, 자원 효율적인 유럽, 글로벌 차원의 산업정책 추진, 새로운 기능과 일자리를 위한 어젠다 추진, 빈곤 대책을 위한 유럽 플랫폼 구축의 7대 전략 추진을 통해 경쟁력 제고를 꾀하고 있음
- 새정부는 새로운 경제비전과 전략으로 창조경제를 제시하였는데, 이의 실현을 위해서는 목표와 방안을 보다 구체화하는 것이 중요
 - 이를 위해서는 창조경제역량에 대한 의미와 구성요소를 명확히 하고, 이에 대한 한국의 수준을 측정해보는 것이 필요

1) 오바마케어란 기존의 '건강보험개혁법(Affordable Care Act)' 시행을 지속함으로써 저소득층은 물론 고령자들을 포함한 개개인의 의료보험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하려는 정책. President Barack Obama(Oct. 23, 2012). The New Economic Patriotism: A Plan for Jobs & Middle-Class Security. The White House.

2) 日本 内閣府, '日本經濟再生に向けた緊急經濟対策', 2013年 1月 11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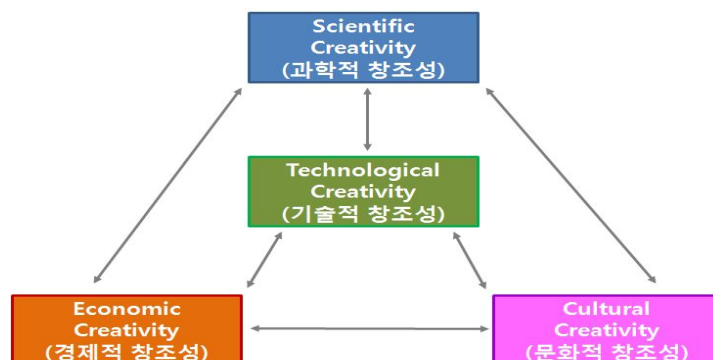
3) European Commission(Juna, 2012), *Europe 2020 : Europe's growth strategy*.

2. 창조경제역량지수의 개념 및 추정 방법

① 창조성의 개념

- (창조성의 개념) 창조성이란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 즉, 창조 능력을 말함
 - 창조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으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 여기에는 아이디어의 생산과 가치화 및 아이디어의 선택까지 포함
 - Sternberg & Lubart(1999) : 창조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을 만들 수 있는 능력
 - Runco(2007) : 창조성이란 새롭고 유용한 것의 창조라고 정의하고 이를 생산물 정의(Products Definitions)라고 칭함
 - NACCCE(The 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1999) : 창조성이란 아이디어의 생산 뿐 아니라 아이디어의 가치화와 가장 적절한 아이디어의 선택까지를 포함
 - Howkins(2001) : 창조성이란 새로운 것을 만드는 능력으로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개인적이고 근본적이며 의미심장한 아이디어와 발명에 의한 산물을 말함
 - 경제에서 창조성, 즉 창조능력이 가지는 의미
 - KEA European Affairs(2006)에 따르면 오늘날 경제에서 창조성이 가지는 의미는 과학적 창조성, 경제적 창조성, 문화적 창조성, 기술적 창조성의 4개 부문의 창조성 사이에 상호 작용과 스피로버 과정이라고 볼 수 있음

< 상호작용과 스피로버 과정으로서의 창조성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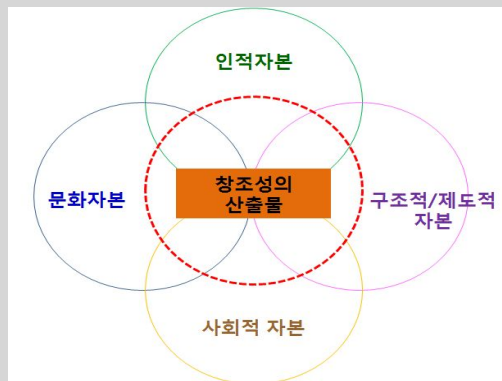


자료 : KEA European Affairs,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Brussels: European Commission DG Education and Culture, 2006.

< 창조성(=창조능력)의 구성 요소 >

- Florida(2002)의 창조성지수(Creativity Indx) 3Ts 모델⁴⁾
 - 지리경제학적 관점에서 특정 지역의 지속가능성장의 기반은 그 지역의 창조력에 의존한다는 ‘창조자본가설(Creative Capital Theory)’을 제기
 - 창조자본의 구성요소로는 재능(Talent), 기술(Technology), 관용(Tolerance)의 3요소를 제시하고 각 요소별 측정 방법을 제시
 - 재능은 창조계급지수를, 기술은 혁신지수와 하이테크지수를, 관용은 게이저수, 보헤미안지수, 인종통합지수를 이용하여 산출
- EURO 창조성지수
 - EURO 창조성지수는 Florida(2002)의 창조성지수의 개념을 차용하면서도, 창조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지표들을 확장
 - 재능은 창조계급, 인적자본, 과학적 재능, 기술은 혁신지수, 기술혁신지수, R&D지수, 관용은 태도지수, 가치지수, 자기표현지수로 각각 확장
-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의 5Cs
 - 창조성의 산출물은 구조적·제도적 자본(Structural/Institutional Capital), 인적자본(Human Capital),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 문화자본(Cultural Capital)에서 비롯된다고 정의
 - 창조성의 구성요소는 구조적/제도적 자본으로 사법제도의 독립, 부패인식, 자유의 표현, ICT 인프라, 사회적·문화적 인프라, 지역시설 이용성, 금융 인프라, 기업가 정신의 8개 부문 22개 대리지표, 인적자본으로 R&D 투자와 교육 지출 지식노동자 인구, 인적자본의 일시적 이동/유동성의 3개 부문 10개 대리지표, 사회적 자본으로 사회적 자본의 발전, 네트워크의 질(규범과 가치), 네트워크의 질(사회적 참여)의 3개 부문 19개 대리지표, 문화적 자본으로 문화 비용, 네트워크의 질(규범과 가치), 네트워크의 질(문화참여)의 3개 부문 14개 대리지표, 창조성의 산출물로 경제적 공헌, 경제분야의 창조적 활동, 기타 산출의 3개 부문 17개 대리지표로 구성

< 홍콩특별행정구 민정사무국의 창조성의 산출물 구성 요소 >



자료 : Florida, R., *The Rise of Creative Class...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 Basic Books, 2002.; Florida, R. & Tinagli, I., *Europe in the Creative Age*, Retrived 20-09-2008 from <http://www.demos.co.uk/files/EuropeintheCreativeAge2004.pdf>, 2004.; Home Affairs Bureau,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A Study on Creativity Index*, Nov., 2005.

4) Florida, R., *The Rise of Creative Class...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 Basic Books, 2002.

② 창조경제역량의 개념과 구성요소

- (창조경제역량의 의미) 창조성을 구성하는 각 요소들의 역량, 즉 창조역량이 지속가능 성장의 기반이 되는 경제 패러다임을 창조경제라고 함
 - 창조경제로 경제 패러다임이 바뀌려면 기존의 자본(K)과 노동(L) 등 요소투입형 경제성장에서 내연적인 성장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 내연적 성장을 위해서는 창조능력을 내포하거나 발현시킬 수 있는 인적자본과 혁신자본 등의 질적 개선이 불가피
 - 따라서, 창조경제역량의 구성요소는 크게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 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이는 창조경제의 핵심 요소들임
 - $Y = F(L, K) \rightarrow Y = F(H, I, ICT, C, S)$. 단 여기서, K 는 자본, L 은 노동을 말하며, H 는 인적자본, I 는 혁신자본, ICT 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 정보통신기술)자본, C 는 문화자본, S 는 사회적 자본을 말함
 - 인적자본 : 노동생산성 제고는 물론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과 같은 창조성을 발휘함으로써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창조적인 개인 또는 전체 집단⁶⁾을 말하는데 이는 노동투입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생산성 향상 요인으로 작용
 - 혁신자본(연구개발혁신자본, 이하 혁신자본) : 기존 지식 스톡, 새로운 아이디어와 혁신을 유발시키는 인적·물적 투자 등으로 창조성의 발현을 지원⁷⁾함으로써 생산성을 제고
 - ICT 자본 : IT 기기는 물론 인터넷 등 정보통신 관련 인프라로 경제 전반의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특정 경제의 창조 능력을 향상시키는데⁸⁾, 자본투입 기여도는 물론 생산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 문화자본 : 의식주 관련 전통문화, 주요 사적, 콘텐츠 등 창조성을 자극하거나 창조성의 발현 결과⁹⁾로서 직접적으로는 생산성 제고에 기여할 뿐 아니라 간접적으로도 노동투입의 질을 제고

5) 유병규,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 전략,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25일에서 인용.

6) OECD는 인적자원이 창조와 혁신의 핵심적인 요소로 지적한 바 있으며, Cohen & Soto(2007)은 교육 등을 통한 인적자본 수준의 증대는 일국의 장기경제성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

7) Schumpeter(1942) 이래 혁신자본은 경제성장과 사회변화의 핵심 요소로 지적되어 왔음.

8) Kelly(1977)는 글로벌, 무형의 자원, 상호 연결성이 신경제의 핵심으로 지적하고, 이 3가지 핵심 요소들이 IT 네트워크에 기반하여 새로운 시장과 사회를 만드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고 지적. OECD, WEF 등은 ICT는 경제성장 뿐 아니라 개인의 삶의 질 제고 등 다양한 부문에서 공헌한다고 주장.

9) 러스킨(John Ruskin)은 문화는 인간의 생활과 생명의 발달에 기여하는 고유가치(Intrinsic Value)가 존재한다고 언급. 제레미 리프킨(2010)은 향후 경제적 부는 물적자본보다는 인간의 상상력과 창조력에서 나오는 비중이 더 높을 것이라 주장. UNCTAD(2004, 2008) 등은 개인의 창조력이 가장 잘 구현되는 분야로 지적재산권, 문화 및 관련 콘텐츠 등의 분야를 예를 들고 있음.

- 사회적 자본 : 공적부문의 효율성, 사회 전반의 신뢰도 등 경제 전반의 창조 능력을 향상¹⁰⁾시킴으로써 생산성을 개선

< 창조경제역량의 요소 >



③ 창조경제역량지수의 개념과 추정 방법¹¹⁾

○ (창조경제역량지수의 개념) 창조경제를 구성하는 요소들의 역량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수화한 것으로, 각 요소별 개별역량지수의 종합지수

- 창조경제역량의 구성요소별 속성

- 인적자본은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입 및 축적, 활용 정도와 인적 자본의 일시적 이동 및 유동성 정도
- 혁신자본은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 중간산출, 최종산출
- ICT자본은 ICT 자본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투입, 활용도 및 그 영향
- 문화자본은 문화 육성을 위한 투입 비용과 사회 전반의 문화 참여도
- 사회적 자본은 사회전반의 규범과 가치척도뿐 아니라 자유, 사회적 참여, 사회통합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기반의 정도까지도 지표에 포함

< 창조경제역량 구성요소별 속성 >

구분	지표의 속성	기존 연구
인적자본	- 노동의 질적 수준 향상을 위한 투입 및 축적, 활용 정도 - 인적자본의 일시적 이동 및 유동성 정도	Home Affairs Bureau,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2005) Florida, R. & Tinagli, I(2004) Florida, R(2002)
혁신자본	- 기술혁신을 위한 투입, 중간산출, 최종산출	
ICT자본	- ICT 자본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위한 투입, 활용도, 영향	
문화자본	- 문화 육성을 위한 투입 비용 - 사회 전반의 문화 참여도	
사회적 자본	- 사회전반의 규범과 가치 척도 - 자유, 사회적 참여, 사회통합 등 구조적이고 제도적인 기반 정도	

10) 사회적 자본은 지식 및 정보의 전달을 촉진시킴으로써 사회전반의 창조적 역량을 제고시키고, 이를 통해 경제성장에도 기여함(Adler and Kwon, 2000 등)

11) 본고에서의 5대 자본 구분과 이에 따른 구성 요소들의 선정은 OECD 국가들의 경쟁력 수준 비교가 가능한 지표들을 중심으로 선정하였음. 또, 5대 자본의 속성과 대표 지표들이 없을 경우 이를 대신할 수 있는 대리 지표들을 활용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음.

- 구성요소별 역량지수 산출 방법

- 데이터의 표준화 : 각 지표별 최고 수준을 10으로 모든 개별 지표들을 지수화
- 구성요소별 역량지수 산출방법 : 구성요소별 역량지수는 해당 요소의 개별 지표들의 산술평균으로 정의
- 창조경제역량지수 : 5개 구성요소별 역량지수의 평균

< 창조경제역량을 나타내는 구성요소별 지표 >

구분	구성	세부 지표
인적 자본	투입(2)	- GDP 대비 공공교육지출(%) - GDP 대비 1인당 공공교육지출(명목, \$)
	성과(2)	- 고용률 - PISA 평가
	인프라(5)	- 대학교육 만족도 - 학교에서의 과학교육 - 중등교육 등록률 - 직원 교육 정도 - 교육시스템 수준
혁신 자본	투입(2)	- GDP 대비 R&D 지출액 - 경제활동인구 1000명 당 연구원 수
	성과(2)	- 하이테크 무역수지비 - 기술무역수지비
	인프라(5)	- 공공 및 민간부문에서의 벤처의 역할 - 벤처캐피탈 이용성 - 연구원 1인당 과학분야 논문수 - 연구원 1인당 삼극특허수 - 혁신능력
ICT 자본	투입(1)	- GDP 대비 텔레커뮤니케이션 투자
	성과(2)	- ICT가 서비스 및 제품에 미치는 영향 - ICT 수출 비중
	인프라(5)	- 커뮤니케이션 기술력 - 유선 고속통신망 이용료 - 고속통신망 가입자 수 - 정보기술력 - 인터넷 사용자 수
문화 자본	투입(2)	- 가계지출 중 문화여가비 비중 - 관광산업 정부지출
	성과(3)	- 외국인 관광객 수 - 관광수지비 - 문화콘텐츠 관련 산업 수지비
	인프라(4)	- 세계문화유산 수 - 자연자원지수 -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 관광인프라
사회적 자본	투입(4)	- 개인보안과 사적재산권 - 경찰 서비스 의존도 - 사회적 응집력 - 정의
	성과(4)	- 삶의 질 - 지니계수 - 1인당 GDP - 범죄와 폭력 비용
	인프라(3)	- 부패지수 - 기회평등 - 법 제정의 효율성

자료 : Florida, R., The Rise of Creative Class...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 Basic Books, 2002.; Florida, R. & Tinagli, I., Europe in the Creative Age, Retrived 20-09-2008 from <http://www.demos.co.uk/files/EuropeintheCreativeAge2004.pdf>, 2004.; Home Affairs Bureau,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A Study on Creativity Index, Nov., 2005를 참고로 현대경제연구원 재구성.

3.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① 개관 - OECD 및 G7과의 비교

○ (중위권 수준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ICT 자본과 혁신자본이 OECD 31개국 평균에 비해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나, 타 자본이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20위로 평가됨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지수는 6.2로 31개국 가운데 20위 수준
 - 한국은 ICT 자본이 8.6, 혁신자본이 5.4로 OECD 31개국 평균 6.9, 4.9보다 높은 수준
 - 하지만, 인적자본이 6.5, 문화자본이 3.7, 사회적 자본이 6.7로 나타나, OECD 31개국 평균인 7.3, 4.7, 7.5에 못 미치는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전체 순위가 하락

< 한국과 OECD 31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비교(2011년) >

구분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 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창조경제역량지수
한국	6.5(22)	5.4(11)	8.6(1)	3.7(29)	6.7(21)	6.2(20)
OECD-31 개국 평균	7.3	4.9	6.9	4.7	7.5	6.3

주 : ()는 OECD 31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터키, 칠레는 자료 누락으로 제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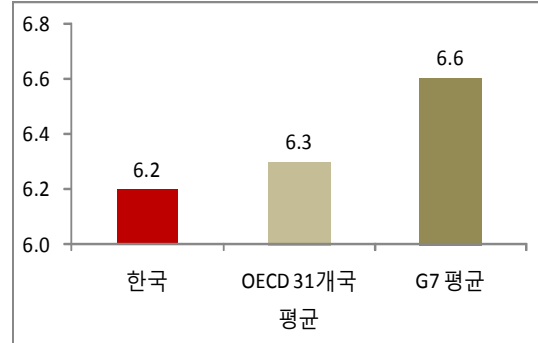
○ (G7과의 격차가 더 큰 창조경제역량지수)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ICT 자본을 제외한 4개 자본 모두 G7보다 열세로 나타나, OECD 31개국보다 G7과의 격차가 더 큰 것으로 평가됨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지수는 6.2, OECD 31개국은 6.3, G7 평균은 6.6으로 나타나 G7 평균과의 격차가 더 큼
 - 한국의 ICT 자본은 8.6으로 G7 평균 7.0에 비해 높은 수준
 - 하지만, 한국의 인적자본, 혁신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이 각각 6.5, 5.4, 3.7, 6.7 수준인 반면, G7 평균은 각각 7.4, 5.5, 5.3, 7.6으로 나타나, 이들 4개 부문이 G7 평균에 못 미침에 따른 결과 OECD 31개국 평균보다 격차가 심해 진 것으로 평가

< 한국과 G7의 창조경제역량지수 추정 결과 비교(2011년) >

구분	한국	G7 평균
인적자본	6.5(22)	7.4
혁신자본	5.4(11)	5.5
ICT 자본	8.6(1)	7.0
문화자본	3.7(29)	5.3
사회적 자본	6.7(21)	7.6
창조경제역량지수	6.2(20)	6.6

< 한국, G7, OECD 창조경제역량지수 비교 > (2011년 기준)



주 : ()는 OECD 31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터키, 칠레는 자료 누락으로 제외. 자료 : 현대경제연구원.

② 창조경제역량지수 부문별 OECD 비교 평가 결과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가운데 강점은 혁신자본과 ICT 자본)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가운데 혁신자본과 ICT 자본이 상대적으로 상위 수준인 것으로 평가

- 가장 경쟁력이 뛰어난 ICT 자본

- 한국의 ICT 자본은 8.6으로 OECD 31개국 중 1위로 가장 높게 평가되었음
- 이는 ICT 자본을 이루는 정보기술력을 제외한 투입, 인프라, 성과 측면의 개별 요소들의 역량이 OECD 31개국 평균보다 높은 수준일 뿐 아니라 상위 수준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 이는 투입 면에서는 GDP 대비 커뮤니케이션 투자, 인프라 면에서는 커뮤니케이션 기술력 정도, 유선고속통신망 이용료, 거주자 1,000명 당 고속통신망 가입자 수가, 성과 면에서는 전체 수출 대비 ICT 수출 비중, ICT가 신제품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이 평가되었기 때문임
- 다만, 인프라 면에서는 인구 1,000명 당 인터넷 사용자 수가 중위권 수준이고, 정보기술력이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는 등 타 지표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됨

- 혁신자본도 타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

- 혁신자본도 5.4로 OECD 31개국 가운데 11위 수준으로 타 요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평가
- GDP 대비 연구개발 투자나 경제활동인구 1,000명당 총연구원 수와 같은 투입 측면에서는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

- 하지만, 여전히 연구원 1인당 과학분야 논문 수, 벤처캐피탈의 이용성, 기술 무역 수지비와 같은 인프라와 성과 부문(총 7개 지표)의 절반 정도의 요소가 OECD 31개국 평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남

< 창조경제역량 추정 결과 - 혁신자본과 ICT 자본(2011년) >

종합순위	국 가	혁신자본	ICT 자본
6	캐나다	5.9 (6)	7.3 (7)
7	미국	5.9 (7)	7.5 (4)
11	독일	5.7 (9)	6.7 (20)
12	프랑스	5.0 (17)	7.0 (16)
13	영국	5.2 (15)	7.3 (9)
15	일본	6.6 (3)	7.1 (15)
24	이탈리아	4.1 (23)	6.0 (31)
20	한국	5.4 (11)	8.6 (1)
G7 평균		5.5	7.0
OECD-31 개국 평균		4.9	6.9

주 : ()는 OECD 31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터키, 칠레는 자료 누락으로 제외.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은 중위권, 문화자본은 하위권) 인적자본은 OECD 31개국 중 22위, 사회적 자본은 21위로 중위권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나, 문화자본은 29위로 하위권으로 평가됨

- 인적자본은 OECD 31개국 중 22위

- 인적자본의 경우 6.5점으로 OECD 31개국 중 22위
- 인적자본의 경우, 투입 면에서는 GDP 대비 공공교육 지출 비중과 1인당 공공교육 지출 비중의 2개 요소가 OECD 31개국 평균 수준을 하회함과 동시에 하위권 수준으로 나타남
- 인프라 부문의 대학교육의 만족도, 학교에서의 과학 교육, 중등교육 등록률, 직원 교육 정도, 교육 시스템 수준의 5개 요소들도 OECD 31개국 평균 수준을 하회할 뿐 아니라 중하위권 수준으로 평가됨
- 다만, 성과 부문에서는 PISA의 학업성취도(읽기, 수학, 과학 성취도 평균)는 OECD 중 최고 수준

- 사회적 자본도 6.7점으로 OECD 31개국 중 21위로 중위권

- 사회적 자본은 6.7점으로 OECD 31개국 중 21위
- 이는 사회적 응집력이 매우 뛰어나고, 기회평등 보장도가 높은 등 투입과 인프라 측면에서 긍정적인 측면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입, 성과, 인프라를 구성하는 11개 지표 중 9개 지표가 OECD 31개국 평균 수준 못 미치기 때문
- 구체적으로는 투입 부문 4개 요소 중 개인 보안과 사적재산권 보호, 경찰서비스 의존도 등 3개 요소가 OECD 31개국 평균 이하로 중하위권으로 평가
- 또, 인프라 부문 3개 요소 중 평등기회만이 OECD 31개국 평균 수준으로 부패지수와 법제정 효율성은 OECD 31개국 평균 수준 이하, 성과 부문은 삶의 질, 지니계수, 1인당 GDP, 범죄와 폭력 비용의 4개 지표 모두 OECD 31개국 평균을 하회하면서 중하위권으로 나타났기 때문
- 반면에 문화자본은 29위로 최하위권¹²⁾
 - 문화자본은 3.7로 OECD 31개국 가운데 29위를 차지하면서, 5개 부문 가운데 가장 취약한 것으로 평가
 - 문화자본의 경우, 세계문화유산이 유일하게 OECD 31개국 평균을 상회하여 상위권으로 평가
 - 하지만, 세계문화유산을 제외한 투입 부문의 가계 지출 중 오락 및 문화 비중, 정부예산 중 여행 및 관광 지출 비중이 OECD 31개국 평균 이하
 - 더욱이 인프라 부문의 세계 자연유산 수,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관광인프라의 3개 요소와 성과 부문의 관광수지 비, 외국인 관광객 수, 문화 및 콘텐츠 관련 산업 무역 수지비의 3개 요소 등 총6개 요소 모두 OECD 31개국 평균에 못 미치며 중하위권으로 평가되었기 때문임

< 창조경제 역량지수 추정 결과-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2011년) >

종합순위	국 가	인적자본	문화 자본	사회적 자본
6	캐나다	8.2 (8)	4.9 (12)	8.6 (8)
7	미국	7.7(13)	6.0 (3)	7.3(19)
11	독일	7.6(14)	5.0 (10)	8.3 (11)
12	프랑스	7.5(18)	6.1 (2)	7.6(17)
13	영국	7.6(16)	5.1 (8)	7.7(16)
15	일본	6.8(20)	4.3 (22)	7.6(18)
24	이탈리아	6.3(26)	6.0 (4)	6.1(26)
20	한국	6.5(22)	3.7 (29)	6.7(21)
G7 평균		7.4	5.3	7.6
OECD-31 개국 평균		7.3	4.7	7.5

주 : ()는 OECD 31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터키, 칠레는 자료 누락으로 제외.

12) 김필수(2013)에서는 ‘문화서비스 교역 규모’가 세계 10위라고 분석. 여기에서 문화자본이란 역사와 전통, 자연, 문화 관련 인프라 등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개념으로 김필수(2013)와는 다른 개념임. 김필수, “문화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발전 과제”,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21일.

③ 창조경제역량지수 부문 간, 부문 내 비교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간 격차가 심함 부문 내 격차도 상존

- 창조경제역량을 구성하는 각 부문 간 경쟁력 격차 존재
 - 한국의 경우, OECD 31개국 내 창조경제역량을 구성하는 각 부문별 순위가 1위부터 29위까지 심각한 격차가 존재
 - G7 국가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나머지 국가들의 경우 한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문 간 격차가 크지 않음

○ 뿐만 아니라 한국의 창조경제역량은 부문 내 격차도 상존

- 창조경제역량을 구성하는 부문 내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
 - 한국의 혁신자본은 5.4로 OECD 31개국 평균 4.9보다 높은 수준
 - 그럼에도 불구하고, 벤처캐피탈의 이용성이나 기술무역 수지비와 같은 인프라와 성과 부문의 지표들은 OECD 평균은 물론 최하위 수준에 불과
 - 더욱이, OECD 전체 1위 수준인 ICT 자본에서도 정보기술력과 같은 인프라 지표가 20위권에 머무는 등 부문 내에서도 심각한 경쟁력 격차가 존재

< 창조경제 역량지수 추정 결과 (2011년) >

종합 순위	국 가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 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	종합지수
1	스위스	8.9 (2)	7.4 (1)	7.3(11)	4.8(13)	9.1 (4)	7.5
2	스웨덴	8.3 (5)	6.7 (2)	7.6 (3)	4.5(18)	9.0 (6)	7.2
3	노르웨이	8.3 (6)	5.3(12)	7.7 (2)	4.6(16)	9.4 (1)	7.1
6	캐나다	8.2 (8)	5.9 (6)	7.3 (7)	4.9(12)	8.6 (8)	7.0
7	미국	7.7(13)	5.9 (7)	7.5 (4)	6.0 (3)	7.3(19)	6.9
11	독일	7.6(14)	5.7 (9)	6.7 (20)	5.0(10)	8.3 (11)	6.7
12	프랑스	7.5(18)	5.0(17)	7.0(16)	6.1 (2)	7.6(17)	6.7
13	영국	7.6(16)	5.2(15)	7.3 (9)	5.1 (8)	7.7(16)	6.6
15	일본	6.8(20)	6.6 (3)	7.1(15)	4.3(22)	7.6(18)	6.5
24	이탈리아	6.3(26)	4.1(23)	6.0(31)	6.0(4)	6.1(26)	5.7
20	한국	6.5(22)	5.4(11)	8.6 (1)	3.7(29)	6.7(21)	6.2
G7 평균		7.4	5.5	7.0	5.3	7.6	6.6
OECD-31 개국 평균		7.3	4.9	6.9	4.7	7.5	6.3

주 : ()는 OECD 31개국 가운데 순위를 의미하며, 이스라엘, 터키, 칠레는 자료 누락으로 제외.

4. 시사점

○ 한국의 창조경제역량 가운데 강점인 혁신자본과 ICT 자본의 활용도 제고

- ICT 자본의 고도화 지속 추진

- ICT 관련 핵심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투자 촉진, ICT 전분야에 걸친 중장기적인 인재 육성 등을 통해 ICT 자본의 핵심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력을 제고
- 전파, 통신망 등 ICT 관련 인프라의 지속적인 업 그레이드와 보급 확대를 위한 정책 발굴 강화
- 사회전반의 소통 원활화와 집단 창조성 제고를 위한 수단으로서 ICT 기반 확충

- 혁신자본의 창조경제역량 기여도 제고

- 중장기 핵심원천기술 개발 지원 강화 및 시장화 촉진, 창조적 활동과 혁신 성과에 대한 사회적 보상 확대, 스피노프제도의 활용도 제고 등을 통해 혁신자본의 창조경제역량 기여도를 제고시켜야 함

- 혁신자본과 ICT 자본을 중심으로 한 창조경제역량 구성요소 간 융합 촉진

- 인적자본과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이 창조경제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장기간의 투자와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 따라서, 타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뛰어난 혁신자본과 ICT 자본을 중심으로 한 타 자본과의 융합 촉진으로 각종 소프트웨어 산업, 문화 콘텐츠 관련 산업, 전자정부 같은 경제·사회 운영시스템 등과 같은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도 동시에 강화

○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제고를 통한 지속가능 성장 기반 확충 노력

- 인적자본 경쟁력 제고를 통한 창조경제의 원천적인 경쟁력 제고

- 개인과 집단의 창조 역량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에서의 관련 교육 투자와 정책이 강력히 추진되어야 함
- 정규교육과정에서 창조 역량 육성을 위해 개인과 집단이 받게 되는 교육은 직업 또는 창업과 연계시켜 청년층의 사회진출을 촉진시킴으로써 인적자본 활용도를 제고해야 함

- 사회적 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개인 또는 집단의 창조성 발현 가속화
 - 경쟁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는 사회적 응집력과 상대적인 보장도가 높은 기회평등의 보장과 같은 요소들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 타깃의 명확화와 각종 지원 대책에 대한 보장성 확보 노력을 강화
 - 한편, 사법질서의 확립, 사회전반에 걸친 부패 방지, 개인 보안과 사유재산권에 대한 철저한 보장, 신뢰와 정의가 제대로 실천될 수 있도록 사회적 계약을 중시하는 풍토 조성, 분배의 평등 등 사회적 자본 고도화를 통해 개인 또는 집단의 창조성 발현을 위한 강한 동기를 부여해야 함

- 문화자본의 축적 및 활용도 극대화 전략 추진을 통해 지속가능 성장 기반을 확충
 - 한국의 경우 문화적 자본이 가장 취약한 창조경제역량으로 평가되어 이에 대한 전략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실정
 - 더욱이, 다수의 세계문화유산이 OECD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나 보유 역사와 전통문화를 활용한 성과 창출이 미흡할 뿐 아니라 이를 기반으로 한 창조성의 발현이 저조한 것으로 판단
 - 문화자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문화자본을 구성하는 각 요소별 경쟁력 정도를 보다 면밀히 살펴보고, 문화 및 관련 콘텐츠 산업 등 산출물의 경쟁력 정도를 평가·분석하여 국가차원의 경쟁전략을 재구축할 필요가 있음

- 정책 추진 일관성 유지 및 창조경제역량 구성 요소의 전반적인 경쟁력 향상을 위한 정부 추진 체제 구축
 - 국가 전체의 창조경제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다양한 부문에 걸친 동시다발적인 정책 노력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복잡다기한 정책 기능이 요구됨
 - 정부 부처 간, 정부와 민간 부문 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조율·통합하여 일관되고 효율적으로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정부 추진 체제가 마련되어야 함

<참고 문헌>

- Adler, Paul S & Seok-Woo Kwon, Social Capital : The Good, The Bad, and The Ugly, In Erick L. Lesser(ed), *Knowledge and Social Capital : Found and Application*, Butterworth-Heinemann, 2000.
- Creative Nova Scotia Ledershop Council, *Creative Economy Literature Review*, 2012. 2. 14.
- Cohen, Daniel, & Marcelo Soto, "Growth and Human Capital : Good Data, Good Results", *Journal of Economic Growth*, 12, 2007.
- European Commission, *Europe 2020 : Europe's growth strategy*, Juna, 2012.
- Florida, R., *The Rise of Creative Class...And How it's Transforming Work, Leisure, Community and Everyday Life*, New York : Basic Books, 2002.
- Florida, R. & Tinagli, I., *Europe in the Creative Age*, Retrived 20-09-2008 from <http://www.demos.co.uk/files/EuropeintheCreativeAge2004.pdf>, 2004.
- Home Affairs Bureau, the Hong Kong Special Administrative Region Government, *A Study on Creativity Index*, Nov., 2005.
- Howkins, J., *The Creative Economy : How People Make Money From Ideas in the UK*, NESTA, 2001.
- KEA European Affairs, *The Economy of Culture in Europe*, Brussels : European Commission, DG Education and Culture, 2006.
- Kelly, K., *New Rules for the New Economy : 10n Radical Strategies for a Connected World*, 1997.
- NACCCE(National Advisory Committee on Creative and Cultural Education), *All Our Futures : Creativity, Culture and Education*, London DfEs, 1999.
- OECD, *The Knowledge-based Economy*, 1996.
- OECD, *The Well-being of Nations : The Role of Human and Social Capital*, 2001.
- President Barack Obama(Oct. 23, 2012. *The New Economic Patriotism: A Plan for Jobs & Middle-Class Security*, The White House.
- Runco, M. A., *Creativity. Theories and Themes : Research, Development and Practice*, Amsterdam : Elsevier, 2007.
- Schumpeter J. A., *Capitalism, Socialism & Democracy*, 1942.

- Sternberg, R. J. & Lubart, T. I., "The Concept of Creativity : Prospects and Paradigms", In R. J. Sternberg(ed.), *Handbook of Creativity*, London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 UK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Creative Industries Taskforce, *Creative Industries : Mapping Document*, London, UK DCMS, 1998.
- UK Department of Culture, Media and Sport & Creative Industries Taskforce, *Creative Industries : Economic Estimates*, London, UK DCMS, 2011.
- UNESCO, *Understanding Creative Industries : Cultural Statistics for public-policy making*, 2006.
- UNCTAD, *Creative Economy Report*, 2004, 2008, 2010.
- Whitt, R. & S. Schultze., "The New 'Emergence Economics' of Innovation and Growth, and What it Means for Communications Policy", *Journal on Telecommunications and High Technology Law*, Vol. 7, No. 217, 2009.
- World Bank & Knack, S., "Social Capital and the Quality of Government : Evidence from The States", *The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46(4), 2002.
- 日本 内閣府, '日本經濟再生に向けた緊急經濟對策', 2013年 1月 11日.
- 野村總合研究所, 平成23年度 知的財産權ワーキング・グループ等侵害對策強化事業 報告書(クリエイティブ産業に係る知的財産權等の侵害實態調査及び創作環境等の整備のための調査), 2012年 3月.
- 김동열 외, "한국경제의 중진국 함정 탈출 전략-4만 달러 도약에 성공한 9개국의 공통점",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2월 15일.
- 김필수, "문화서비스 산업의 특징과 발전 과제", 『VIP 리포트』,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21일.
- 유병규, "창조경제의 의미와 새정부의 실현 전략", 『경제주평』, 현대경제연구원, 2013년 3월 25일.
- 제레미 리프킨, 『소유의 종말』, 민음사, 2010년.
- 현대경제연구원, 『지식혁명과 기업』, 1999년.
- 현대경제연구원, 『지식경제』, 각호.

이부형 수석연구위원(2072-6306, leebuh@hri.co.kr)

정민 선임연구위원(2072-6220, chungm@hri.co.kr)

< 참고 1. >

□ 창조산업의 분류

구분	창조 산업
John Howkins, (2001)	광고, 건축학, 미술,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공연예술, 장난감 및 게임, 텔레비전 및 라디오, 비디오 게임
UK DCMS (영국 문화·미디어·스포츠부, 1998)	광고, 건축학, 미술, 골동품 시장, 공예, 디자인, 패션, 영화 및 비디오, 음악, 출판, 소프트웨어, 공연예술, 텔레비전 및 라디오, 게임
Concentric Circles Model (200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창조 예술 : 문학, 음악, 행위예술, 시각디자인 - 기타 핵심 문화 산업 : 영화, 박물관 및 도서관 - 광범위한 문화 산업 : 문화유산 서비스, 출판, 녹음, 텔레비전 및 라디오, 게임 - 연관산업 : 광고, 건축, 디자인, 패션
WIPO(200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 저작권 산업 : 광고, 컬렉션 소사이티, 영화 및 비디오, 음악, 행위예술, 출판, 소프트웨어, 시각 및 그래픽 디자인, 텔레비전 및 라디오 - 상호의존적인 저작권 산업 : 가전제품, 악기, 신문, 복사기, 사진 장비, 녹음기기 - 부분적 저작권 산업 : 건축, 의류 및 신발, 디자인, 패션, 장난감, 가사용품
UNCTAD(2004, 200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산 : 전통문화(미술, 공예, 페스티벌), 문화유적지(박물관, 도서관, 선사 유적지) - 예술 : 시각디자인, 행위예술 - 미디어 : 출판 및 인쇄, 시각적 오디오 - 실용적 창조 : 디자인(패션, 그래픽 등), 뉴미디어(소프트웨어, 비디오 게임), 창조서비스(건축, 광고, 창조 R&D)
UK NESTA (영국 과학·기술·예술 기금, 2007)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핵심창조 분야 : 고도 수준의 표현가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저작권 보호 적용이 가능한 상업적 결과물 - 문화 산업 : 저작권에 근거한 표현 산출물의 대량 재생산 관련 활동 - 문화 산업과 활동 : 표현가치의 사용은 공연의 필수 요소임 - 기타 : 창조산업에 의해 발생한 표현 산출물에 이익을 받은 제조업과 서비스업
Conference Board of Canada & Stats, Canada(2008)	광고, 도서관 및 기록보관소, 건축, 방송, 공예, 문화교육, 디자인, 영화산업, 박물관, 행위예술, 사진, 음악녹음, 시각디자인, 소설

자료 : Creative Nova Scotia Ledership Council, *Creative Economy Literature Review*, 2012. 2. 14.

< 참고 2. >

□ 창조경제의 구성요소별 역량지표

5대 구성요소	구성	세부지표	출처	비고	
인적자본 (9개 지표)	투입	GDP 대비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IMF, Government Finance stat yearbook 2011	- 2010년 기준 (GDP 대비, %)	
		1인당 교육에 대한 공공 지출	IMF, Government Finance stat yearbook 2011	- 2010년 기준 (1인당 US\$)	
	인프라	대학교육의 만족도	IMD 2012	- 2012년 기준 (경쟁경제의 요구하는 수준 만족도) - 점수가 높을수록 총족 (10점 만점)	
		학교에서의 과학 교육	IMD 2012	- 2012년 기준 (강조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충분히 강조(10점 만점)	
		중등교육 등록률	UNESCO	- 2010년 기준	
		직원 교육 정도	WEF	- 2011년과 2012년 가중 평균 (기업들이 직원 발전을 위한 투자 정도) - (7점에 근접하면 투자가 잘 이루어짐)	
	성과	교육 시스템 수준	WEF	- 2011년과 2012년 가중 평균(교육시스템 이 얼마나 만족도) - 7점 만점으로 7점에 가까우면 만족을 의미	
		고용률	OECD	- 2011년 기준 (15세-64세 인구 대비 비율)	
	혁신자본 (9개 지표)	투입	PISA (학업성취도 평가)	OECD	- 2009년 기준 (읽기, 수학, 과학 기하평균)
			GDP 대비 R&D 지출액	OECD	- 2011년 기준 - 호주, 일본, 칠레, 한국, 터키, 중국 은 2010년 기준, 멕시코, 뉴질랜드는 2009년, 아이슬란드, 스위스 2008년, 그리스 2007년 기준임
인프라		경제활동 1,000명당 총연구원수	OECD	- 경제활동 인구 1,000명당 총 연구원 수 (2011년 기준 -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터키, 중국은 2010년, 뉴질랜드, 아이슬란드 2009년, 호주, 스위스 2008년, 미국, 그리스 2007년, 이스라엘 자료 없음)	
		공공 및 민간 부분 벤처의 역할	IMD(2012)	- 2012년 기준 (기술발전에 기여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기여도 높음 (10점 만점)	
		벤처 캐피탈의 이용성	WEF	- 2011년과 2012년 가중 평균 (기업들의 벤처캐피탈 접근성) - (7점에 근접하면 접근이 쉬움)	
		과학분야 논문수 / 연구원 1인당	NSF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12/ OECD	과학 분야 논문수 (2009년 기준) / 총 연구원(2010년 기준)	
		삼극특허 / 연구원 1인당	OECD	미국 특허청(USPTO), 일본 특허청(JPO), 유럽 특허청(EPO)에 모두 등록된 특허 삼극특허(2010년)/ 총 연구원수(2010년)	
성과		기업 혁신능력	IMD(2012)	- 2012년 기준 (기업의 혁신능력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혁신능력이 높음 (10점 만점)	
		기술 무역	OECD	기술 수출 / 기술 수입(2011년 기준 - 호주, 캐나다, 아일랜드, 이스라엘, 룩셈부르크, 뉴질랜드, 노르웨이, 슬로베키아 2010년, 한국, 멕시코는 2009년, 프랑스 2003년, 칠레, 터키는 자료 없음)	
		하이테크 무역 수지비	OECD	하이테크 수출 / 수입(2011년 기준 - 스페인은 2010년 기준임) 하이테크는 제약, 기계, 항공, 전자, 컴퓨터 및 사무기기를 의미함	

5대 구성요소	구성	세부지표	출처	비고
ICT 자본 (8개 지표)	투입	GDP 대비 커뮤니케이션 투자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 2010년 기준 (GDP 대비 비중, %)
		커뮤니케이션 기술력 정도	IMD(2012)	- 2012년 기준 (비즈니스 상황에 만족도)
	인프라	인터넷 사용자 수	Computer Industry Almanac	인구 1,000명당 인터넷 사용자 수 (2011년 기준)
		고속통신망 가입자 수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거주자 1,000명당 가입자 수(2010년 기준)
		정보기술력	IMD(2012)	2012년 기준 (점수가 높을수록 쉽게 이용)
		유선고속통신망 이용료	International Telecommunication Union	월 사용료, US\$(2010년 기준) - 낮을수록 좋음
	성과	ICT 재화 수출 비중	World Bank	2010년 기준 (전체 수출 대비 비중, %)
		ICT가 신제품과 서비스에 미치는 영향	WEF	- 2010년-2011년 기중 평균 (창조에 중요한 영향 정도) - (7점에 근접하면 영향이 높음)
문화적 자본 (9개 지표)	투입	가계 지출 중 오락 및 문화 비중	OECD	2011년 기준
		정부 예산 중 여행 및 관광 지출 비중	World Travel & Tourism Council	2011년 기준
	인프라	세계 문화 유산 수	Unesco	2012년 기준
		세계 자연 유산 수	Unesco	2012년 기준
		관광산업 발전 지속성	WEF	- 2011년- 2012년 기중 평균 (정부의 노력으로 지속가능성 여부) - (7점에 근접하면 효과적이 노력임)
	성과	관광수지비	World Bank	2010년 기준
		외국인 관광객 수	World Bank	2010년 기준
		문화 및 콘텐츠 관련 산업 무역 수지비	UNDP	2010년 기준 (상품과 서비스 포함)
사회적 자본 (11개 지표)	투입	개인 보안과 사적재산권 보호	IMD(2012)	- 2012년 기준 (적절하게 보호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적절하게 보호됨
		정의	IMD(2012)	- 2012년 기준 (공정 집행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공정하게 집행됨
		사회 응집력	IMD(2012)	- 2012년 기준 (응집력 우선 정도) - 점수가 높을수록 우선시 됨
		경찰 서비스 의존도	WEF	- 2011년- 2012년 기중 평균 (법 집행을 위한 경찰 서비스 의존도) - (7점에 근접하면 의존도가 높음)
	인프라	부패지수	국제투명성기구	높을수록 투명성 높음(2011년 기준)
		기회평등	IMD(2012)	2012년 기준 높을수록 경제발전에 뒷받침이 됨
		법제정의 효율성	WEF	- 2010년 2011년 기중평균 - (7점에 근접하면 효율성이 높음)
	성과	삶의 질	IMD(2012)	2012년 기준 높을수록 높음
		지니계수	OECD	2000년대 후반 (세후 소득 기준)
		1인당 GDP	IMF	2011년 기준 (명목 US \$)
		범죄와 폭력 비용	WEF	- 2011년- 2012년 기중 평균 (비용 발생 정도) - (7점에 근접하면 비용 발생 없음)

< 참고 3. >

□ OECD 창조 역량지수 비교(2011년 기준)

순위	국가	인적자본	혁신자본	ICT 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창조경제 역량 지수
1	스위스	8.9 (2)	7.4 (1)	7.3 (11)	4.8 (13)	9.1 (4)	7.5
2	스웨덴	8.3 (5)	6.7 (2)	7.6 (3)	4.5 (18)	9.0 (6)	7.2
3	노르웨이	8.3 (6)	5.3 (12)	7.7 (2)	4.6 (16)	9.4 (1)	7.1
4	덴마크	8.9 (1)	5.9 (5)	7.3 (10)	4.0 (26)	9.1 (5)	7.0
5	핀란드	8.9 (3)	6.4 (4)	7.0 (17)	3.7 (28)	9.1 (3)	7.0
6	캐나다	8.2 (8)	5.9 (6)	7.3 (7)	4.9 (12)	8.6 (8)	7.0
7	미국	7.7 (13)	5.9 (7)	7.5 (4)	6.0 (3)	7.3 (19)	6.9
8	네덜란드	8.3 (7)	5.8 (8)	7.3 (8)	4.2 (25)	8.5 (9)	6.8
9	아이슬란드	8.6 (4)	5.1 (16)	7.4 (6)	4.5 (17)	7.9 (14)	6.7
10	호주	8.1 (9)	4.8 (18)	6.7 (19)	5.2 (7)	8.6 (7)	6.7
11	독일	7.6 (14)	5.7 (9)	6.7 (20)	5.0 (10)	8.3 (11)	6.7
12	프랑스	7.5 (18)	5.0 (17)	7.0 (16)	6.1 (2)	7.6 (17)	6.7
13	영국	7.6 (16)	5.2 (15)	7.3 (9)	5.1 (8)	7.7 (16)	6.6
14	오스트리아	7.6 (17)	5.3 (13)	6.3 (27)	5.4 (5)	8.2 (13)	6.5
15	일본	6.8 (20)	6.6 (3)	7.1 (15)	4.3 (22)	7.6 (18)	6.5
16	벨기에	8.0 (10)	5.2 (14)	6.9 (18)	4.3 (23)	7.7 (15)	6.4
17	룩셈부르크	7.6 (15)	4.4 (20)	6.6 (23)	3.8 (27)	9.1 (2)	6.3
18	뉴질랜드	7.9 (11)	4.3 (21)	6.6 (21)	4.3 (21)	8.4 (10)	6.3
19	아일랜드	7.9 (12)	5.6 (10)	6.1 (30)	3.6 (31)	8.2 (12)	6.3
20	한국	6.5 (22)	5.4 (11)	8.6 (1)	3.7 (29)	6.7 (21)	6.2
21	스페인	6.3 (25)	3.9 (26)	6.3 (28)	7.0 (1)	6.9 (20)	6.1
22	에스토니아	6.7 (21)	4.5 (19)	7.1 (13)	5.0 (9)	6.6 (22)	6.0
23	포르투갈	7.2 (19)	3.9 (24)	7.2 (12)	4.9 (11)	6.4 (23)	5.9
24	이탈리아	6.3 (26)	4.1 (23)	6.0 (31)	6.0 (4)	6.1 (26)	5.7
25	체코	6.3 (27)	3.9 (25)	6.6 (24)	4.7 (14)	6.3 (25)	5.6
26	슬로베니아	6.4 (24)	4.2 (22)	6.1 (29)	4.4 (20)	6.4 (24)	5.5
27	헝가리	6.1 (28)	3.7 (27)	7.4 (5)	4.4 (19)	5.6 (28)	5.4
28	폴란드	6.4 (23)	3.1 (29)	6.6 (22)	4.2 (24)	6.0 (27)	5.3
29	그리스	5.7 (29)	3.2 (28)	6.4 (25)	5.3 (6)	5.4 (30)	5.2
30	슬로바키아	5.4 (31)	2.9 (30)	7.1 (14)	3.6 (30)	5.5 (29)	4.9
31	멕시코	5.4 (30)	2.7 (31)	6.4 (26)	4.6 (15)	4.5 (31)	4.7

자료 1. ()는 각 부문 순위를 의미함.

2. OECD 국가 중 이스라엘은 총 연구원 수, 칠레와 터키는 기술 무역 수지 자료 누락으로 제외함.

주요 국내외 경제지표

□ 주요국 성장률 추이

구분	2011년					2012년					2013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2/4	3/4	4/4	
미국	1.8	0.1	2.5	1.3	4.1	2.2	2.0	1.3	3.1	-0.1	2.0
유로 지역	1.4	0.8	0.2	0.1	-0.4	-0.4	0.0	-0.2	-0.1	-0.6	-0.2
일본	-0.6	-7.3	-2.8	10.4	0.6	1.9	6.0	-1.0	-3.8	-0.4	1.2
중국	9.3	9.7	9.5	9.1	8.9	7.8	8.1	7.6	7.4	7.9	8.2

주 1) 2013년 전망치는 IMF 2013년 1월 전망 기준

2) 미국, 일본은 전기대비 연율, EU는 전기대비, 중국은 전년동기대비 기준임.

□ 국제 금융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15일	3월 21일	
해외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1.88	1.65	1.70	2.00	1.92	-0.08%p
	엔/달러	77.66	79.37	85.86	96.10	96.09	-0.01¥
	달러/유로	1.2955	1.2437	1.3222	1.3012	1.2932	-0.0080\$
	다우존스지수(p)	12,218	12,880	12,938	14,514	14,421	-93p
	닛케이지수(p)	8,455	9,007	10,395	12,561	12,636	75p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	3.34	3.30	2.82	2.61	2.59	-0.02%p
	원/달러(원)	1,151.8	1,145.4	1,070.6	1,110.3	1,115.7	5.4원
	코스피지수(p)	1,825.7	1,854.0	1,997.1	1,986.5	1,950.8	-35.7p

□ 해외 원자재 가격 지표

구분	구분	2011년말	2012년		2013년		전주비
			6월말	12월말	3월 15일	3월 21일	
국제 유가	WTI	99.22	84.86	90.89	93.46	92.26	-1.20\$
	Dubai	104.89	92.89	107.99	105.07	105.09	0.02\$
CRB선물지수		305.30	284.19	294.78	296.44	294.05	-2.39p

1) CRB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주요 상품선물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산출하는 지수로 원자재 가격의 국제기준으로 간주됨.

□ 국내 주요 경제지표 추이

구 분		2011			2012			2013(E)
		상반기	하반기	연간	상반기	하반기	연간	
국민계정	경제성장률 (%)	3.8	3.4	3.6	2.6	1.5	2.0	3.1
	민간소비 (%)	2.9	1.6	2.3	1.4	2.2	1.8	2.5
	건설투자 (%)	-7.1	-3.0	-5.0	-0.3	-2.2	-1.5	2.2
	설비투자 (%)	8.9	-1.1	3.7	2.6	-5.8	-1.8	4.8
대외거래	경상수지 (억 달러)	81	184	265	138	295	433	285
	무역수지 (억 달러)	153	155	308	109	174	283	257
	수출 (억 달러)	2,736	2,816	5,552	2,750	2,729	5,479	5,786
		(증가율, %)	23.6	14.9	19.0	0.5	-3.1	-1.3
	수입 (억 달러)	2,582	2,662	5,244	2,641	2,555	5,196	5,529
		(증가율, %)	26.7	20.2	23.3	2.3	-4.0	-0.9
소비자물가 (평균, %)		3.9	4.1	4.0	2.7	1.7	2.2	2.5
실업률 (평균, %)		3.8	3.0	3.4	3.6	2.9	3.2	3.3
원/달러 환율 (평균, 원)		1,102	1,114	1,108	1,142	1,112	1,127	1,060

주 : E(expectation)는 전망치